

2022 불가리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진출전략

목 차

2022 불가리아 진출전략

C o n t e n t s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1. 개요	2
가. 시장전망	2
나. 주요 경제지표	2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3
가. 불가리아 정부 구성 난항, 2022년 신정부 출범 기대	3
나. 103억 유로 경제회복기금(RRF) 집행 본격화	4
다. EU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불가리아 친환경 투자 확대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가. 정치 환경	8
나. 경제 환경	9
다. 산업 환경	10
라. 정책·규제 환경	11
2. 시장분석	13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13
나. 수출	14
다. 투자	17
라. 프로젝트 및 공공조달	22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24
가. 교역	24
나. 투자	26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8
III. 진출전략	30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30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1
3. 한-불가리아 경험을 통한 진출전략	37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41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2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43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전시회 캘린더	44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45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상승)

■ 2021년 2분기를 저점으로 경기 반등세가 지속되며 2022년 4% 경제 성장 전망

- 불가리아 중앙은행 2022년 경제 성장률을 4.6%로 전망
 - 코로나 확산세 감소 및 방역 정책 완화로 2021년 2분기를 기점으로 위축된 소비, 투자 심리가 회복하며 경기가 반등세로 전환
 - 유럽 내 위드 코로나 트렌드의 여파로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교역국 벨류 체인 정상화 단계로, 불가리아 총 교역의 60%를 차지하는 역내 교역 회복
- 2021~2027년 특별회복기금을 포함 EU기금 286억 유로가 불가리아에 유입
 - 코로나 보건/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103억 유로 규모의 특별회복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이 2021~2023년 사이 집중적으로 집행 예정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구	백만 명	7.1	7.1	7.0	7.0	6.9	6.9	6.8
명목 GDP	십억 달러	53.8	59.0	66.2	68.6	69.1	79.3	82.0
1인당 명목GDP	달러	7,575.8	8,382.0	9,470.6	9,863.0	9,919.3	11,321.3	12,355.6
실질성장률	%	3.8	3.5	3.2	3.6	-3.8	4.0	3.9
실업률	%	7.7	6.2	6.2	5.6	7.4	6.7	5.6
소비자물가상승률	%	-1.3	1.2	2.6	2.5	1.2	1.0	2.0
재정수지(GDP대비)	%	1.5	0.8	0.1	-1.0	-3.0	-3.7	-2.2
총수출	백만 달러	25,563	30,431	32,777	32,602	31,080	38,039	39,388
(對韓 수출)	"	96.9	69.5	117.7	154.8	112.0	-	-
총수입	"	26,661	31,305	35,974	35,858	33,216	40,451	43,546
(對韓 수입)	"	131.4	133.9	179.8	174.9	158.0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1,098	-874	-3,197	-3,256	-2,136	-2,412	-4,158
경상수지	"	1,651	1,961	628	1,255	-456	1,443	1,684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86	1.63	1.71	1.74	1.59	1.66	1.69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8.3	5.0	9.2	7.8	2.7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4.9	20.1	18.1	20.8	-	-	-

주 : 2021년은 추정치, 2022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 EIU, IMF(1인당 명목GDP, 소비자물가상승률), 불가리아 통계청(對韓 수/출입), World Bank(해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정부 구성 난항으로 정책 추진 지연, 2022년 신정부 출범 기대
- ▶ 103억 유로 경제회복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집행 본격화
- ▶ EU 그린딜 정책 강화에 따른 불가리아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

가. 불가리아 정부 구성 난항, 2022년 신정부 출범 기대

■ 제45대 총선 이후 정당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연립정부 구성 2차례 무산

- 제45대 1차 총선('21.4월) 개최 결과, 전통 여당인 GERB가 득표율 26.8%로 선거에서 승리하나 주요 정당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연립정부 구성 무산
 - 득표율 1위인 GERB, 2위 ITN, 3위 BSP가 모두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며 불가리아는 제45대 2차 총선('21.7월)까지 임시 정부 체제로 국정 운영
 - * 불가리아는 총선 이후, 득표율 1위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며, 동 정당은 다른 정당과 연립하여 전체 의석의 과반 수 이상(121석)을 확보해야한다. 만약 1~3위 정당이 모두 정부 구성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은 임시내각을 구성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 제45대 2차 총선 결과, ITN이 득표율 24.1%로 1위, GERB가 23.5%로 2위를 차지하나, 두 정당 간 연정 구성 합의에 실패하며 정부 구성이 무산
 - 정부 구성이 다시 한 번 무산되며 제45대 3차 총선 개최가 11월로 결정됐으며, 불가리아는 임시 정부 체제 하 국정 운영을 11월까지 유지할 예정

2021년 제45대 1~2차 총선 결과, 주요 정당별 득표율 현황

순위	정당명	1차 선거(2021. 4. 4)		2차 선거(2021. 7. 11)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1	ITN	17.7	51	24.1	65
2	GERB	26.8	75	23.5	63
3	BSP	15.0	43	13.4	36
4	DB	9.5	30	12.6	34
5	MRF	10.5	27	10.7	29
6	ISMV	4.7	14	5.0	13

* 자료 : 불가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부 구성 난항으로 주요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2022년 중 신정부 출범 예상
 - 2021~2027 EU기금 집행 계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 공백 등으로 관련 프로젝트 발주 등이 대거 취소 및 지연되고 있음
 - 현재 GERB 등 주요 정당은 정부 구성에 2차례 실패한 만큼, 3차 총선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 구성을 도출해야하는 정치적 부담감을 보유

나. 103억 유로 경제회복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집행 본격화

■ 2021~2027년 기간 불가리아에는 286억 유로 규모의 EU기금이 배정

- 2021~2027년 기간 불가리아에 배정된 기금은 167억 유로 규모의 '다년도 지출 예산(MFF)'과 119억 유로의 '차세대 EU기금(NGEU)'으로 구성
 - NGEU는 EU 회원국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103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 RRF는 보조금과 차관으로 구성되며, 불가리아에는 58억 유로의 보조금(Grant)이 배정됐으며, 차관(Loan)은 최대 45억 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2021~2027 불가리아 EU기금 배정 계획 (2018년 물가 기준)

(단위: 십억 유로)

기금명	배정액	기금 세부 구성(십억 유로)
다년도 지출 예산(MFF)	16.7	Cohesion Policy(9.0), Common Agricultural Policy(7.0) 등
차세대 EU기금(NGEU)	11.9	RRF(10.3/보조금 5.8, 차관 4.5), REACT-EU(0.7) 등
총계	28.6	

* 자료: Capital News(2021.4.2. 기사), The EU's 2021-2027 long-term Budget and Next Generation EU Fact and Figures(2021.4.30./EU 집행위) 자료 종합 (무역관 재가공)

■ 불가리아는 2022년부터 경제회복기금(RRF) 103억 유로를 본격 집행할 예정

- 불가리아 정부는 2021년 10월 경제회복기금(RRF)에 대한 집행 계획을 제출 완료했으며, EU 집행위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파악
 -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2022년부터 RRF 기금의 본격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 발주를 활발히 시작할 것으로 보임
 - * EU기금 수원국은 EU로부터 기금 집행 계획을 승인 받은 후 기금을 집행할 수 있음. 다년도 집행 계획 예산의 경우 불가리아 정부 구성이 지연되며 집행 계획을 미제출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기금 집행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불가리아의 RRF는 ‘친환경(Green Bulgaria)’, ‘혁신(Innovative Bulgaria)’, ‘교통/통신(Connected Bulgaria)’, ‘복지(Fair Bulgaria)’의 4대 분야로 구성
 - 총 예산의 34.8%가 친환경 분야에 투입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뒤를 이어 혁신 25.8%, 교통/통신 22.5%, 복지 16.9%의 순임

불가리아 경제회복기금(RRF) 4대 분야 및 예산 배정

분야	예산(억 유로)	세부 주제
Green Bulgaria(친환경)	35.8	저탄소경제,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농업 등
Innovative Bulgaria(혁신)	26.6	교육, 기술훈련, R&D, 스마트산업 등
Connected Bulgaria(교통/통신)	23.2	디지털전환, 교통망개선, 지역개발 등
Fair Bulgaria(복지)	17.4	보건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 자료: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of Bulgaria(2021.2월) (무역관 재가공)

다. EU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불가리아 친환경 투자 확대

■ 2021년 7월, EU 집행위는 강화된 탄소 감축 입법안인 ‘Fit for 55’를 발표

- Fit for 55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2030년 중기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로 총 13개의 법안으로 구성
 - EU는 그린딜*을 통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 55% 감축 목표를 설정
 - *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란 2050년까지 탄소중립(순탄소 배출 0) 달성을 목표로 EU사회 전 분야를 녹색 전환하는 정책 로드맵으로 2019년 12월 발표됨
 - Fit for 55는 이러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입법 수단으로 ‘유럽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조정 제도’, ‘자동차탄소배출 규정’ 등이 핵심 법안임

■ EU 그린딜 본격화로 불가리아의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 추진이 전망

- 불가리아 정부는 국가에너지환경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을 수립
 - 동 계획은 EU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불가리아 전체 에너지의 27%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리아는 친환경 전력 생산 비중을 30.33%, 친환경 냉/난방 비중 42.60%, 친환경 교통 비중을 14.2%까지 늘릴 예정

2020~2030 불가리아 친환경 에너지 생산 목표

(단위: %)

구분	2020년	2030년
친환경 에너지 목표 비율	20.20	27.09
친환경 전력 생산 목표 비율	21.40	30.33
친환경 냉난방 목표 비율	31.07	42.60
친환경 교통 목표 비율	9.89	14.20

* 자료 : Integrated Energy and Climate plan of the Republic of Bulgaria 2021~2030

■ 친환경 발전, 탄소 감축 기술,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관련 투자 확대 전망

- 불가리아는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40%에 육박하여 태양광 등 친환경 발전, 탄소 배출 감축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 EU로부터 석탄 발전 중단을 지속 권고 받고 있으나, 관련 산업의 고용 창출,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석탄 발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임
- 또한, 친환경 교통 확대를 위해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
 - 2020년 불가리아 내 전기차 충전소는 EU 최하위권인 194개로, 낮은 충전소 보급 대수는 불가리아 전기차 사용을 막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

Ⅱ. 비즈니스 환경분석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신생 정당의 부상, 불가리아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 기대
- ▶ (경제) 2020년 -4% 역성장을 극복, 2021년 2분기 이후 V자 회복 중
- ▶ (산업) 서비스업 위주 산업 구조, 서유럽 등에서 핵심 부품 수입, 가공 후 재수출
- ▶ (정책) EU 기금 통한 자국 경제 육성, 유럽 그린딜에 발맞춰 저탄소 경제 전환 노력

가. 정치 환경

■ 신생 정당의 부상, 불가리아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 기대

- 45대 재총선(2021. 7월) 결과, 신생 정당 ITN이 득표율 24.1%로 선거 승리
 - 2021년 4월 제 45대 총선에서 기존 집권 여당인 GERB가 승리하나, 정당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며 7월 재선거를 추진*
 - * 불가리아는 총선 이후, 득표율 1위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며, 동 정당은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전체 의석의 과반 수 이상(121석)을 확보해야한다. 만약 1~3위 정당이 모두 정부 구성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은 임시내각을 구성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 7월 45대 재총선 결과, 정치 개혁을 주장한 신생 정당 ITN이 득표율 24.1%로 GERB(득표율 23.5%)를 누르고 득표율 1위 정당에 등극
- 신생 정당의 부상을 통해 불가리아인의 개혁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ITN이 정부 구성에 성공할 경우 불가리아의 대규모 구조개혁이 기대
 - 불가리아의 구조 개혁은 EU 통합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불가리아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수행할 시 향후 유로화 도입 등 EU 통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2차례 정부 구성 무산으로 정치에 대한 불가리아인의 피로도가 누적되며, 기존 전통 여당인 GERB의 재부상 가능성도 존재
 - 불가리아는 4월부터 임시 정부 체제 국정 운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결정권자의 부재로 주요 정책 결정 및 행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3차까지 이어진 총선으로 피로감이 누적되며, 정치 개혁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희망하는 불가리아인들이 늘어날 경우, 기존의 전통 여당인 GERB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

나. 경제 환경

■ 2020년 -4% 역성장을 극복, 2021년 2분기부터 V자 반등 회복 중

- 불가리아 중앙은행은 2021년 경제 성장률을 4.1%, 2022년을 4.6%로 추정
 - EU, IMF 등 주요기관들 또한 불가리아가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어 2022년까지 4% 초중반대의 GDP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

주요 주관별 2020~2025년 불가리아 경제 전망

(단위 : %)

기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EU	-4.4	3.8	4.1	3.5	-	-
IMF	-4.2	4.5	4.4	4.0	3.6	3.1
EIU	-3.8	4.0	3.9	3.1	3.0	3.0

* 자료 : EU('21.11월 전망치), IMF('21.10월 전망치), EIU('21.8월 전망치) 자료 종합

- 불가리아 경제는 2021년 2분기 이후 회복 국면으로 전환
 - 2021년 2분기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방역정책 완화로 그 동안 위축됐던 소비, 투자 심리가 회복
 - 특히, 2021년부터 불가리아에 유입되기 시작한 286억 유로 규모의 EU기금 역시 불가리아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2021년 불가리아 분기별 주요 거시 경제지표 예측

(단위 : %)

거시 경제지표	2020.4Q	2021.1Q	2021.2Q	2021.3Q	2021.4Q	2022.1Q
경제성장률	-3.77	-1.79	9.65	6.51	5.10	3.54
물가상승률	0.42	0.00	2.37	3.08	3.38	3.50
실업률	5.43	6.00	6.07	5.52	5.19	4.97
민간소비증가율	1.58	4.34	6.88	1.93	3.15	1.39
산업생산증가율	-3.51	-0.13	14.98	7.48	6.52	4.21

* 주 : 실업률을 제외한 모든 거시 경제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임

* 자료 : Country Economic Forecast-Bulgaria(Oxford Economics/2021.9월) (무역관 재가공)

■ 불가리아 낮은 백신 접종률은 향후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불가리아의 총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2차 완료, 2021.10.11 기준)은 19.6%로 EU 회원국 가장 낮은 접종률을 기록 중(동 기간 EU 평균은 63.2%)
 - 불가리아는 5월 이후 임시 정부 체제로 국정 운영 중이며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 불확실한 보건 정책으로 백신 접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음

다. 산업 환경

■ 2020년 전체 GDP 중 3차 산업의 비중이 70%로 서비스 산업 위주의 경제

- 2020년 기준 3차 산업이 69.5%, 2차 산업이 26.5%, 1차 산업이 3.9%를 차지
 - 2016~2020년 기간 3차 산업 비중은 증가 추세로 2016년 67.2% 대비 2.3%p 증가한 반면, 1차와 2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0.8%p, 1.6%p 감소

최근 5년간 불가리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억 BGN,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1차	38.3	4.7	41.3	4.7	37.0	3.9	38.8	3.7	40.5	4.0
2차	230.2	28.1	248.2	28.1	245.2	25.8	258.9	25.0	272.4	26.5
3차	550.3	67.2	594.2	67.2	669.0	70.3	736.1	71.3	713.6	69.5
총계	818.9	100.0	883.7	100.0	951.2	100.0	1033.8	100.0	1,026.5	100.0

* 자료 : 불가리아 통계청(2021. 10월 기준)

■ 서유럽에서 원자재를 수입, 가공 후 재수출하는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산업 유망

- (자동차부품) 유럽 전기차 벨류 체인 형성으로 불가리아 내 관련 투자 증가
 - 완성차 제조공장은 없으나 자동차부품 관련 외국인 투자진출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불가리아에서 생산된 부품은 주로 유럽 완성차 벨류 체인에 납품 됨
 - 2021. 7월, 독일 전기차 기업인 Next e.GO Mobile사가 불가리아 북부 로베치(Lovech)에 연 3만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전기차 생산 공장 투자를 결정하는 등 불가리아 내에서도 전기차 벨류 체인 형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전자기기) 서유럽 등의 글로벌 기업에서 핵심부품을 수입, 가공 후 재수출
 - 타EU회원국 대비 낮은 인건비를 활용, POS단말기, 카지노용 게이밍머신 등전자기기의 핵심부품을 공급받아, 조립·가공하여 재수출하고 있음
 - 한국기업이 POS단말기의 부분품을 불가리아에 수출 중이며, 관련하여 2020년 한국의 대불가리아 수출 4위 품목(MTI 8149 기준)이 기타전자응용기기임

2021~2022 불가리아 핵심 산업 내 주요기업 동향

업종	국가	기업명	진출형태	'21~'22년 주요 동향
자동차부품	독일	Next e.GO Mobile	생산법인	- 2021. 7월 불가리아 북부 로베치 지역 내 140백만 유로 규모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결정 - 연 3만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동 공장은 2024년에 완공되어 조업을 시작할 예정임 - 동 사는 해당 공장에서 자사의 소형 전기차 모델인 E.Go Life, E.Go Life Corss 등을 생산할 예정

* 자료 : 무역관 자체 조사

라. 정책·규제 환경

■ EU기금,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외부 자금을 통한 경제 육성

- EU기금을 통한 인프라 투자는 불가리아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
 - 2021~2027년 기간 불가리아는 총 286억 유로 규모의 EU기금을 지원 받을 예정이며, 이는 2020년 기준 불가리아 GDP의 47%에 달하는 규모임
 - 불가리아의 EU기금은 인프라 투자를 주로 지원하는 결속 기금(Cohesion Fund)의 비중이 높아, 이를 통한 인프라 투자는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임
 - 불가리아 재부무는 2019년 하반기 'EU Fund in Bulgairia 보고서를 통해 'EU기금으로 불가리아가 5.5%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
- 또한, 불가리아는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추진
 - 정부는 경제부 산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불가리아 투자청(Investment Bulgaria Agency, IBA)을 통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논스톱 투자 지원 서비스 제공
 - 특히, 제조업 투자 육성 시 기타 산업 대비 확대된 투자 인센티브 및 편의 제공

■ EU 유럽 그린딜 정책(European Green Deal)에 발맞춰 저탄소 경제 전환 노력

- EU는 불가리아에 2030년까지 총 에너지의 27%를 신재생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
 - 불가리아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 27%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환경 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을 수립하여 발표
 - 동 계획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2030년까지 친환경 전력 생산 비중을 30.33%, 친환경 냉/난방 비중을 42.60%, 친환경 교통 비중을 14.2%까지 늘릴 예정
 - * 2021. 7월, 강화된 EU 탄소 감축 법안인 ‘FIT for 55’가 발표됨에 따라 불가리아는 조만간 기존보다 상향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비율 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으로 예상

2020~2030 불가리아 친환경 에너지 생산 목표

(단위: %)

구분	2020년	2030년
친환경 에너지 목표 비율	20.20	27.09
친환경 전력 생산 목표 비율	21.40	30.33
친환경 냉난방 목표 비율	31.07	42.60
친환경 교통 목표 비율	9.89	14.20

* 자료 : Integrated Energy and Climate plan of the Republic of Bulgaria 2021~2030

2. 시장분석

- ▶ 제조업 발달이 미약한 수입의존 경제, 1인당 소득 증가로 공산품 수입 증가
- ▶ 유럽의 가공 공장으로서 역내 교역 비율 높음, 유럽 벨류 체인 회복되며 교역 증가 추세
- ▶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추진
- ▶ 2021~2027 EU 기금 286억 배정, 불가리아의 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발칸 반도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서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

- EU 회원국으로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서유럽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
 - 유로화 도입 등 EU 융합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발칸 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EU 역내국 및 인근 동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가능
 - 개인 및 기업 소득 세율이 10%*로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편이며, 현지의 낮은 임금을 활용한 노동 집약적 산업 투자 진출에 유리
- *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 투자 유치를 장려하고 있어, 고실업 지역 내 제조업 투자 진출 시 일정 조건 한도 내에서 법인세 완전 면제도 가능

■ 제조업 기반이 미약하여 외부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 공산품 등 일반 소비재, 의료기기, 주요 부품 소재 등 기술 기반 제품을 수입
 -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내외로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며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 2020 불가리아 산업 구조 현황 : 1차 산업(4.0%), 2차 산업(26.5%), 3차 산업(69.5%)
- 일부 자동차부품, 전자기기의 경우 현지 조립생산 공장이 있지만 핵심 부품 자체는 생산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 서유럽 등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 규모는 작지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동유럽의 틈새시장

- 인구 약 700만 명, 1인당 국민소득 9,900달러 내외 소규모 시장
 - 작은 시장 규모로 바이어의 최소거래물량이 작은 편으로, 대기업의 시장 관심도가 낮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
- * 2016~20 對불가리아 수출 중소기업(개사) : ('16)728 → ('17)755 → ('18)783 → ('19)824 → ('20)845

나. 수출

■ 최근 불가리아 수출입 동향

- 2022년 불가리아의 교역량은 829억 달러로 전망(2021년 예상치 대비 5.6% 증가)
 - 2022년 수출 394억 달러, 수입 435억 달러로 유럽 코로나 확산 이후 감소했던 국가 간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
 - 2020년은 유럽 코로나 확산으로 불가리아와 주요 교역국(독일, 이탈리아 등) 간 벨류 체인이 마비되며 불가리아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일시적으로 급감
 - 2021년부터 유입된 103억 유로의 EU 특별회복기금, 유럽 위드 코로나 정책 따른 벨류 체인 회복 등으로 불가리아의 수출입은 당분간 증가할 전망

불가리아의 대세계 교역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예상)	2022(전망)
수출	30,431	32,777	32,602	31,080	38,039	39,388
수입	31,305	35,974	35,858	33,216	40,451	43,546
교역량	61,736	68,751	68,460	64,296	78,490	82,934
수지	-874	-3,197	-3,256	-2,136	-2,412	-4,158

* 자료 : Country Report- Bulgaria(EIU/2021) (소피아무역관 재가공)

■ 국가별 수출입 동향

- 불가리아는 EU 역내 및 인근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중국과의 교역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 2007년 불가리아의 EU 가입을 기점으로, 60%의 높은 역내 교역 의존도를 보임
 - * EU 역내 수출 비중 : (2017년)60.7% → (2018년)64.4% → (2019년)63.4% → (2020년)65.3%
 - * EU 역내 수입 비중 : (2017년)62.2% → (2018년)61.8% → (2019년)60.9% → (2020년)60.9%
 - 역외국 중에서는 공산주의 시절 많은 영향을 받은 러시아, 불가리아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장 가까운 터키와의 교역량 역시 많은 편임
 - 또한, 불가리아의 대중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중국은 불가리아의 6위 수입국을 기록하는 등 2016~2020년 기간 수입 10위권을 지속 유지 중임
 - * 2016~20 불가리아 대중 수입(십억 달러) : (2016년)1.15 → (2018년)1.56 → (2020년)1.79

- 특히, 서유럽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조립 후 재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편임
 - 2020년 EU 역내국 수출입 기준 1위 교역국은 독일, 3위 교역국은 이탈리아
 - 독일계 기업의 백색가전의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후 재수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도 주요 섬유원단 수입 후 봉제 가공하여 최종 의류를 재수출

2018~2020 불가리아의 국가별 수출입 순위 및 비중

(단위: %)

순위	2018		2019		202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독일(14.9)	독일(12.4)	독일(14.8)	독일(12.2)	독일(16.1)	독일(12.1)
2	이탈리아(8.7)	러시아(9.7)	루마니아(8.7)	러시아(9.9)	루마니아(9.1)	루마니아(7.3)
3	루마니아(8.6)	이탈리아(7.5)	이탈리아(7.4)	이탈리아(7.5)	이탈리아(6.9)	이탈리아(7.1)
4	터키(7.6)	루마니아(6.9)	터키(7.2)	루마니아(7.3)	그리스(6.7)	터키(7.0)
5	그리스(6.7)	터키(6.1)	그리스(6.8)	터키(6.4)	터키(6.4)	러시아(6.2)
6	프랑스(4.0)	스페인(4.7)	프랑스(3.8)	그리스(4.7)	프랑스(3.8)	중국(5.1)
7	벨기에(3.5)	그리스(4.3)	벨기에(2.9)	중국(4.5)	벨기에(3.4)	그리스(4.9)
8	네덜란드(2.8)	중국(4.1)	중국(2.7)	스페인(3.8)	중국(3.3)	네덜란드(4.0)
9	중국(2.7)	네덜란드(3.8)	스페인(2.7)	네덜란드(3.6)	네덜란드(2.6)	헝가리(3.9)
10	스페인(2.5)	헝가리(3.4)	네덜란드(2.5)	헝가리(3.6)	폴란드(2.5)	폴란드(3.7)
한국	38위(0.32)	29위(0.47)	35위(0.43)	29위(0.45)	44위(0.33)	36위(0.44)
일본	58위(0.15)	31위(0.43)	63위(0.17)	33위(0.41)	60위(0.18)	31위(0.50)
중국	9위(2.7)	8위(4.1)	8위(2.7)	7위(4.5)	8위(3.3)	6위(5.1)

* 자료 : Global Trade Atlas

■ 품목별 수출입 동향

- 보일러, 기계류, 전자기기, 일반 차량, 원유(정제 후 수출) 등을 수입
 -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많고, 서유럽 하청 제품에 대한 원자재 수입이 반영
 -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생활필수품(공산품) 등을 서유럽에서 주로 수입
- 전자기기, 구리 및 구리제품, 광물성 연료, 기계류, 사료 등을 수출
 - 구리 광산에서 채취한 자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불가리아는 유럽 내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사료용 밀, 옥수수 등을 수출하고 있음
 - 또한, 서유럽에서 하청 받은 전자기기, 기계류, 의료 등을 가공하여 재수출

불가리아의 품목별 수출입 순위 및 금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입					수출				
	HS코드	품목	2018	2019	2020	HS코드	품목	2018	2019	2020
1	84	보일러, 기계류	3,948	3,875	3,771	85	전자기기	3,679	3,670	3,503
2	85	전자기기, TV	3,656	3,824	3,748	74	구리, 구리제품	3,015	2,394	2,813
3	27	광물성 연료	5,045	5,130	2,910	84	보일러, 기계류	2,742	2,805	2,675
4	87	일반차량	2,810	2,694	2,177	27	광물성 연료	2,817	3,083	1,434
5	26	광, 슬래그	2,177	1,721	2,138	10	사료	1,225	1,514	1,324
6	30	의약품	1,581	1,588	1,699	87	일반차량	1,052	1,177	1,201
7	39	플라스틱 제품	1,705	1,669	1,649	30	의약품	1,070	1,115	1,152
8	72	철강	1,428	1,357	1,175	39	플라스틱 제품	991	1,047	1,097
9	73	철강제품	711	906	882	26	광, 슬래그	692	901	1,020
10	38	화학제품	795	812	793	94	가구류	793	737	782

* 자료 : Global Trade Atlas(2021. 10월 기준)

2021~2022년 글로벌 기업의 협력 수요

기업명	2022년 동향	사업수요	한국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TEREM (방산) (불가리아)	• 불가리아 국방부 차륜형 장갑차 프로젝트 관련 현지 공장 설립 통한 투자 진출이 가능한 기업 발굴 중	투자진출, 기술이전	• EU에 기준 부합하는 자체 장갑차 모델 생산 능력 보유 • 현지 투자진출 가능 기업 - (한) 자금, 기술력 제공 - (불) 토지, 노동력 제공
RADA (농업) (불가리아)	• 서유럽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위해 불가리아 내에서 인삼 재배를 계획 중으로 인삼 재배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한국기업과의 협업 희망	인삼 재배 노하우 등 기술 이전	• 인삼 재배 노하우 보유

2021년 우리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수출 성공사례: 차광막 생산기업 S사(불가리아 수출)

- 경북 소재 차광막 생산기업인 S사는 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통해 USD 23,000 수출 성약 달성
- 불가리아의 對한국 차광막 수입은 최근 4년(2017~2020)간 연평균 -54%의 성장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부터 EU기금 유입으로 농업 분야 투자가 늘며 관련 제품의 수요 회복이 기대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對韓수입증가율('20)	對韓수입증가율('21.6월누계)
600537	차광막	-6.2%	N/A ('20. 6월 누계 수입 없음)

- 제품의 비교우위: 서유럽 제품 대비 높은 가성비, 한국 기업의 신속한 의사소통 및 피드백
- 물류비 급등에 따라 정부의 물류비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없음
성약 소요기간	4개월 / 2021.3(무역관 지사화 서비스 가입) ~ 2021.7(성약)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온라인서치)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화상상담 등 간접 참가 사업 활용) 불가리아는 타 국가 대비 시장이 작은 편이며, 직항도 없어 국내기업이 직접 출장을 오기에는 비효율적인 곳임. 따라서, 지사화나 화상상담 등 KOTRA의 간접 참가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 (바이어 성향 파악) 시장 규모가 작아 바이어가 우리기업의 최소주문물량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편으로, 거래 초기 최소 거래물량을 신중적으로 운영하며,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함 (정부 지원 사업 적극 활용) 물류비 급등으로 바이어의 제품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기업은 정부의 물류비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수출 단가를 크게 낮춤으로써 유럽 내 경쟁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

다. 투자진출

최근 투자진출 동향

- 2020년 외국인의 불가리아 투자는 2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6% 증가
-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위한 현지 가공·조립 공장 설립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 진출 증가로 2018년 이후 불가리아 인바운드 투자는 꾸준히 증가
- 2020년 국별 對불가리아 투자 순위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바하마, 독일 순임
-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룩셈부르크(9.76억 유로)로 1위를 차지, 뒤를 이어 네덜란드(6.0억 유로), 바하마(3.5억 유로), 독일(3.4억 유로) 등의 순임

2016~2020 불가리아의 대 세계 투자 동향

(단위: 억 유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9.40	16.06	9.68	16.39	22.73
해외직접투자(Outbound)	3.66	2.93	2.11	4.02	1.56

* 자료 : 불가리아 중앙은행

■ 투자유치 유망분야

- 아웃소싱, IT 등 고기능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 투자 진출
 - 많은 청년들이 영국, 독일 등 서유럽권에서 공부하여 2개 국어 이상 구사자의 비율이 높으며, 불가리아는 전통적으로 IT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기계 등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 진출
 - 월 평균 급여 약 500유로 내외로 타 EU회원국 대비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편
 - 기업 소득세를 역시 10%로 전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이며, 부동산, 수도, 전기세 등의 기타 제반 비용 역시 저렴한 편으로 비용최소화에 용이
-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식품, 농업 분야 투자 진출
 - 불가리아 전체 국토의 약 49%가 농경지이며, 온화한 기후 환경으로 다양한 작물, 과일, 채소 재배에 유리

불가리아 투자 유망분야 강점 및 대표기업

분야	강점	대표기업
아웃소싱	구직자의 2개 국어 이상 구사자 비율이 높음	HP, IBM, Sutherland, Sitel 등
IT	매년 4천명 이상이 IT 분야 학사를 취득	SAP, Visteon, Vmware, Prosyst 등
전자·기계	저렴한 인건비, 세금을 통한 비용 최소화 용이	Holcim, Knauf, Solvay, Aurubis 등
식품	온화한 기후로 작물 재배 등에 유리	Nestle, Kraft, Carlsberg 등

* 자료 : 무역관 자료 종합

■ 투자유치 정책

- 불가리아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중임
 - (조세 감면) 고실업 지역 투자에 대한 세제 상 인센티브 제공
 - (부가세 면제) 투자 실현을 위한 현물(자산) 수입 시 부가세 환급 지원
 - (고용보조금) 청년 및 빈곤층 등을 고용할 경우, 고용청(Bulgaira Employment Agency)이 해당 피고용인의 급여와 고용주세를 일정 기간 부담

- 특히, 정부는 투자 등급(Class A, B)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 투자 프로젝트별 투자금액, 투자분야,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공

불가리아의 외국인 투자등급 기준

구분	A 등급(Class A)	B 등급(Class B)
제조업 투자	5백만 유로 이상 투자 (2백만 유로 이상, 150개 고용창출)	2.5백만 유로 이상 투자 (1백만 유로 이상, 100개 고용창출)
고실업 투자	2백만 유로 이상 투자 (25개 고용창출)	1백만 유로 이상 투자 (10개 고용창출)
제조업 첨단 산업 투자	2백만 유로 이상 투자 (25개 고용창출)	1백만 유로 이상 투자 (10개 고용창출)
서비스 투자	1.5백만 유로 이상 투자 (0.5백만 유로 이상, 150개 고용창출)	0.75백만 유로 이상투자 (0.25백만 유로 이상, 100개 고용창출)
서비스 첨단 산업 투자	1백만 유로 이상 투자 (50개 고용창출)	0.5백만 유로 이상 투자 (25개 고용창출)

* 주 : 투자등급은 금액조건만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고용창출효과까지 감안하여 등급 부여

* 자료 : 불가리아 투자청

- 또한, 불가리아는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우대하고 있음
 - (첨단산업 R&D 투자) 초기 투자 시점부터 3년 내 추가 투자한 금액이 초기 투자금의 25%를 넘을 경우, 정부가 초기 투자금의 최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
 - (제조업 투자) 초기 투자 시점부터 3년 내 추가 투자한 금액이 초기 투자 금액의 50%를 넘을 경우, 정부가 투자금의 최대 10%를 보조금으로 지원

■ 주요 경쟁국(일본, 중국) 투자진출 동향

- (중국) 장성기차(Great Wall) 완성차 공장 진출과 중단
 - 2008년 9,840만 유로를 투자하여 연간 5만대 생산이 가능한 완성차 공장을 불가리아에 설립했으며, 이는 중국의 첫 유럽 자동차 생산기지였음
 - 당시 불가리아의 Litex Motors가 장성기차와 합작 투자했으며, 공산권 시절 자동차 생산기지였던 Lovech 지역에 공장을 설립
 - 그러나,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이 유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당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논란 발생, 2016년 파산 신청 및 공장 중단
- (일본) Tokuda 병원 진출 및 매각
 - 2006년 일본의 Tokusukai Medical Corporation 병원이 불가리아 소피아에 1.2억 유로를 투자하여 Tokuda 병원을 건립

- 동 병원은 소피아에서 가장 큰 외국계 병원으로 32개 진료실, 22개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응급실, 첨단 진단센터를 운영 중임
- 2016년 터키기업인 Acibadem Healthcare Holding가 동 병원을 인수했으며, 현재는 Acibadem City Clinic Tokuda로 병원명을 변경하여 운영 중

■ 우리기업의 투자 동향 및 사례

- 1997년 현대중공업의 국영 변압기 제조사 인수, 2011년 남동발전과 SDN의 태양광 발전 분야 협력 투자진출 이후 실질적인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은 아직까지 없음
- 주요투자기업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은 회사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현지 공장을 러시아계 회사에 매각, 2019. 11월 불가리아에서 철수
- 일부 우리기업(의류 OEM, 자동차부품 등)이 현지의 낮은 인건비를 고려하여 투자진출을 검토했으나 현지 인력 부족으로 실제 투자진출이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음

◎ 한국 기업의 불가리아 투자진출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양광 발전(남동발전, SDN)

■ 태양광 발전소 투자 현황

- 진출 기업명 : 남동발전, 에스디엔(SDN) 합작 투자
- 설비 용량 : 41.62MW(ASM 20.14MW, RES 21.48MW)
- 위치 : 불가리아 Veliko Tarnovo 지역
- 착공/준공일 : 2010. 12/2011. 12(ASM), 2012. 2(RES)
- 총 사업비 : 139,697천 유로(2,229억)[환율 1,595원/유로]
* 변경 사업비 : 142,302천 유로(2,206억)[환율 1,550원/유로]
ASM : 71,041천 유로(1,099억)/RES 71,261천 유로(1,107억)



〈ASM〉



〈RES〉

● 사업구조



■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 정부의 낮은 행정 투명도, 관련 제도 미비로 투자 진출 어려움 가중
 - 행정기관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일관성 없는 정책 등은 불가리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진출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
 - 경제부 산하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불가리아 투자청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 비해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결여
- 믿을 수 있는 현지 에이전트 발굴, 공인된 투자 유치 전담기관 활용
 - 주요인사와의 인맥을 과시하며 컨설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에이전트에 대한 주의 필요
 - IBA(불가리아 투자청), NCIZ(불가리아 산업단지공단) 등 정부 투자유치 지원기관 활용

■ 불가리아 투자유치 지원기관

- 불가리아 투자청(IBA, Investment Bulgaria Agency)
 - (대표메일) iba@investbg.government.bg
 - (대표전화) +359-2-985-5500
 - (홈페이지) <http://www.investbg.government.bg>
 - (지원업무) 투자진출 희망 기업 대상 분야별 전문가 및 투자 유망지역 추천
- 불가리아 산업단지공단(NCIZ, National Company Industry Zones)
 - (대표메일) office@nciz.bg
 - (대표전화) +359-2-8902-902
 - (홈페이지) <http://nciz.bg/en/>
 - (지원업무) 투자 유망지역 정보 제공, 투자 현지시찰 지원
- 불가리아 상공회의소(BCCI, 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대표메일) bcci@bcci.bg
 - (대표전화) +359-2-8117-400
 - (홈페이지) <http://www.bcci.bg>
 - (지원업무) 현지 경제 일반정보 제공, 기업 등록, 투자기업 비자 취득 지원

라. 프로젝트 및 공공조달

■ 불가리아 프로젝트 동향

- 불가리아 등 중·동부 유럽은 EU기금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가 활발
 - EU기금 중 SOC 구축을 지원하는 결속기금(Cohesion Fund)의 80%가 중·동부 유럽에 집중되어 이를 통한 교통, IT, 의료,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가 다수 발주
- 그러나, EU기금 지원 프로젝트의 특성 상 역내기업의 수주 비중이 매우 높음
 - 한국 등 역외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부족, EU 프로젝트의 역내국에 유리한 경쟁 구조(EU 기술 조건 요구, 현지어 사용 등) 등으로 역외기업 실적은 저조함
 - 2014~2019년 발주된 EU 기금 100대 프로젝트(금액 기준) 분석 결과, 현지 기업의 수주가 85건으로 일부 고기술 프로젝트만을 해외기업이 수주

2014~2019 불가리아 EU기금 지원 100대 프로젝트(금액 기준) 분석

(단위: 억 유로, %)

유형 \ 국가	자국 기업		해외기업		컨소시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철도	6	1.6	2	3.4	1	0.8	9	5.8
지하철/트램	9	1.9	2	0.2	3	3.1	14	5.4
도로	27	5.7	0	0	0	0	27	5.7
에너지	0	0	2	0.4	0	0	2	0.4
상하수도	23	2.1	1	0.1	3	0.5	27	2.6
기타	20	2.7	1	0.1	0	0	21	2.9
합계	85	14.3	8	4.3	7	4.4	100	23.1

* 자료 : Contractors All OPs(Bulgaria) 소피아 무역관 재가공

■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진출 사례

- 현지 프로젝트 관심도는 늘고 있으나 경험 부족 등으로 수주 난항을 겪고 있음
 - 2017년 소피아 시내 E-Ticketing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현지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진출했으나, 현지 유력인사와의 네트워킹 구축에 실패하며 수주 실패
 - 2019년 철도 객차 공급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가를 검토 했으나 발주처가 유럽 기술 조건을 요구함에 따라 입찰을 포기
- 하지만, 지속적인 수주노력으로 최근 우리기업의 성공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중
 - 2019년 소피아 지하철 스크린도어 프로젝트(11백만 유로 규모)에 한국기업이 현지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에 성공
 - 2020년 EU기금을 활용한 현지 보건부의 코로나 방역용품 긴급 공공조달(62만 유로)에 한국기업 2개사가 한국산 방역용품(PCR 검진 키트 등)조달에 성공

■ 현지 프로젝트 진출 시 참고사항

- 2021~2027 운용 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 OP) 사전 분석
 - OP란 EU기금 집행에 관한 기금 수혜국의 마스터플랜으로 OP 내에는 프로젝트 분야, 우선 순위, 주요 프로젝트, 시행 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2021~2027년 불가리아의 OP 사전 분석을 통해 유망 프로젝트, 발주처 등 프로젝트 주요 정보에 대한 선제 발굴 및 사전 준비가 가능함
- EU기금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파이낸싱이 포함된 진출 모델 개발
 - 수원국에 자체 예산 매칭을 요구하는 EU기금의 특성 상 재정 상황이 어려운 불가리아 등 동유럽국은 파이낸싱 방안을 포함한 입찰 방식을 선호
 - 따라서, 기존 도급형 방식 보다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등의 투자개발사업 방식의 입찰을 통한 현지 수주 경쟁력 확보 필요
- 공신력 있는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 EU기금 프로젝트는 유럽 기술 사양, 현지어 입찰서류, EU 프로젝트 레퍼런스 등 역외국의 프로젝트 입찰을 저해하는 진입 장벽이 높아 공신력 있는 현지 파트너 기업 발굴 및 컨소시엄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 제고 필요

■ 2022년 유망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명	발주처명	규모(USD)	프로젝트 단계	발주 일정
불가리아	육군 차륜형 장갑차 구매	국방부	830 M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2022년 하반기
불가리아	의료용 헬기 구매	보건부	92 M	기술사양 조율, 예산 확정	2022년 1분기
불가리아	Sofia-Pernik-Radomir 구간 철도 현대화	철도교통공사	410 M	설계 완료, 예산 확정	2022년 1분기
불가리아	다뉴브강 제3대교 건설	국토교통부	50 M	설계 준비, 예산 확보	2022년 4분기 발주 예정

■ 2022년 유망 공공조달

국가	분야	유망사유(시장동향등)	조달기관/납품 벤더	URL	조달세부품목
불가리아	의료기기	• EU기금을 활용한 보건환경 개선에 따라 노후 의료기기에 대한 교체 수요 존재	불가리아 보건부	www.mh.government.bg	의료장비, 의료기기, 병원용 가구
불가리아	교통	• BDZ(국영철도기업) 노후 객차 교체를 위한 신규 전차용 객차 25대 구매 수요 존재	BDZ	www.bdz.bg	전차용 객차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가. 교역

■ 한국-불가리아 간 교역 동향

- 2020년 한국-불가리아 간 교역량은 약 3.66억 달러로 전년대비 13.1% 감소
 - 한국의 對불가리아 수출은 1.57억 달러로 전년대비 5% 감소, 수입은 2.09억 달러로 18% 감소, 무역적자는 0.52억 달러로 전년보다 0.37억 달러 축소
 - 2021년 이후 양국 간 교역 회복 추세로, 2021년 9월 누계 기준 한국의 對불가리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 수입은 45.0% 증가

2016~2021.9월 한국-불가리아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누계
수출	135	137	174	166	157	128
수입	102	154	179	255	209	234
교역량	237	291	353	421	366	362
수지	33	-17	-5	-89	-52	-106

* 자료 : 무역협회 수출통계(2021.11월 기준)

■ 품목별 교역 동향

- (수출) 한국은 합성수지, 자동차, 섬유류, 전자기기 등 공산품 위주 수출
 - PET병 원료인 폴리에틸렌 합성수지가 2021년 1위 수출 품목, 한국차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이며, 기타전자응용기기는 현지 하청 생산 공장에 공급
 - 2020년 불가리아 코로나 확산으로 체외진단용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며, 당해 한국의 기타정밀화학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2,282.7% 급등

한국의 對불가리아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9		2020		2021. 9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합성수지	49,795	-1.6	46,195	-7.2	32,378	-10.7
2	승용차	25,081	37.1	25,358	1.1	23,390	115.9

순위*	품목명	2019		2020		2021. 9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3	폴리에스테셜섬유	6,893	-4.9	5,222	-24.3	8,420	126.6
4	기타전자응용기기	9,039	-36.5	7,107	-21.4	7,754	46.4
5	기타정밀화학제품	334	-2.6	7,963	2,282.7	4,530	30.6
6	화장품	1,894	88.6	3,589	89.5	4,073	65.7
7	타이어	5,915	3.8	6,602	11.6	4,072	-22.0
8	음료	4,665	-22.8	4,139	-11.3	3,091	-7.6
9	연결부품	2,335	-10.1	2,275	-2.6	2,533	57.5
10	기타기계류	600	-62.8	2,303	283.7	2,277	8.4

* 자료 : 무역협회 수출통계(2021.11월 기준), MTI 4단위

- (수입) 한국은 곡류, 사료, 동제품 등 1차 생산물 위주 수입
 - 동물 사료용 해바라기씨, 옥수수 등의 곡류, 사료가 불가리아 수입 상위 품목
 - 2021년 아우로비스 구리 광산에서 나온 동제품 수입이 크게 늘며 2위를 차지
 - 불가리아 하청 공장에서 제작한 의류 및 가방 등을 직수입

한국의 對불가리아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19		2020		2021. 9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곡류	70,103	126.9	29,938	-57.3	40,321	98.7
2	동괴및스크랩	1,626	-72.0	1,725	6.1	37,688	3,549.4
3	사료	40,962	63,630.7	27,547	-32.7	32,226	17.0
4	동조가공품	26,294	63.1	24,172	-8.1	27,832	70.5
5	직물제의류	18,722	-3.3	19,534	4.3	18,067	21.2
6	편직제의류	6,882	40.0	7,577	10.1	7,422	35.1
7	주조설비	2,949	-15.4	2,348	-20.4	5,416	289.8
8	계측기	6,500	-23.0	6,143	-5.5	4,948	13.1
9	가방	2,898	19.3	3,558	22.8	4,569	91.1
10	의약품	4,264	-17.2	4,790	12.3	4,483	39.4

* 자료 : 무역협회 수출통계(2021.11월 기준), MTI 4단위 기준

■ 우리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 (건강음료) 시장 수요와 KOTRA 사업을 통한 성공적인 마케팅
 - 불가리아 바이어는 2008년부터 일용소비재를 수입 유통하고 있으며, 2010년 한국과의 거래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약 350개 컨테이너 물량을 수입 중
 - 국내업체는 KOTRA 수출바우처 서비스 중 ‘해외홍보지원 서비스’를 신청, 해당 바이어를 통해 판촉전을 시행하여 대형슈퍼 등 현지 주요 유통망 입점에 성공
- (산업용 모니터) KOTRA 지사화 사업을 통한 적격 바이어 발굴
 - 지사화 서비스를 통해 불가리아 최대 게임 제조업체 E사를 발굴, 국내기업의 제품이 가장 큰 공급업체로 인정될 만큼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킴
 - 유럽 경쟁사에 오더 물량을 뺏길 수 있었으나 수출기업과 무역관 직원이 협업하여 적절히 대응한 결과 지속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했음
 - 동 기업은 나아가 KOTRA에서 진행하는 세일즈랩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지인 지사장을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현지 거래선 관리를 진행 중임
- (시사점) 시장 초기 진출 시 KOTRA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
 - 불가리아는 아직까지 한국기업에게 생소한 시장으로 저격 바이어 발굴, 가격 조건 협의, MOQ 등 첫 거래 성사까지 많은 장애물이 존재함
 - 따라서, 시장 진출 초기 KOTRA의 지사화사업,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현지 수출기반 확보가 필요

나. 투자

■ 한국의 대 불가리아 투자 동향

- 2020년 한국의 對불가리아 누적 투자액은 230백만 달러로 에너지 분야 집중
 - 한국의 對불가리아 누적 투자 63.5%가 ‘전기, 가스 공급업’으로 주로 태양광 발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진출 초기 숙박업 투자가 나머지를 차지
 - 주요 투자진출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이 2019년 11월 불가리아에서 전격 철수

한국의 對불가리아 직접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분류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계
제조업	19,144	149	-	-	-	19,292
숙박 및 음식업	52,204	-	-	-	-	52,204
도매 및 소매업	2,403	-	246	-	-	2,649
부동산업	1,500	-	-	-	-	1,500
건설업	3	-	-	-	-	3
전기, 가스 공급업	141,792	-	-	-	4,029	145,821
정보통신업	8,089	-	-	-	-	8,089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	125	-	-	-	125
합계	225,136	273	246	0	4,029	229,683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21.10월. 기준)

■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 사례

- (성공사례)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합작을 통한 리스크 관리
 - 2011~2012년에 걸쳐,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합작투자자로 42MW의 태양광 발전소를 현지에 건립(총 투자비 1억 5,400만 유로 규모)
 - 초기 진출 시 프로젝트 비용을 산업은행 용자로 조달했으나, 2017년 현지 상업은행으로 리파이낸싱을 완료함에 따라 이자율 감소, 순이익 증가
 -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여 산업은행의 용자를 조달하는 등 해외 투자 진출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한 사례임
- (실패사례) 불가리아의 인력 유출에 따른 실질 노동력 확보 어려움
 - 2018년 해외 글로벌 신발 브랜드를 주문 제작 생산하는 한국기업 A사가 불가리아 내 유럽 수출용 신발 생산 공장 투자 진출을 검토
 - 하지만, A사는 공장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5,000명)을 구하지 못해 투자 진출을 포기. 이는 불가리아의 인력이 대거 서유럽으로 유출된 것에 기인
 - 불가리아 투자 진출을 고려한 B사(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 또한 현지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세르비아에 최종 투자 진출을 결정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한국-불가리아 외교 관계 현황

- 2020년은 한-불가리아 수교 30주년으로 양국은 1990년 3월 23일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주요 인사 교류 및 문화·경제·통상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990. 3월) 한국-불가리아 외교 관계 수립
 - (2017. 10월) 韓 국무총리의 불가리아 방문 양국의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
 - (2019. 9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 방한, 양국 교역 품목 다양화 및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협력 강화 논의(불가리아 총리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
 - (2020. 3월)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정상 간 유선 통화 시행,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모색
- * 불가리아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산 방역 용품(검진 키트 등) 62.1만 유로를 조달

■ 경제·통상 분야 협력

- 불 총리 방한에 따른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논의
 - 2019년 9월 25~27일 기간, 보리소프 총리가 불가리아 총리로써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 양국 간 교역 분야 확대 및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협력 논의를 진행
 - 방한 기간 KOTRA는 불가리아 중소기업청(BSMEPA), 투자청(IBA)과 무역 및 투자 진흥 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 2020 서울식품전 내 불가리아 국가관 구성, 한국의 투자 유치 시스템 전수 등을 논의

■ 국방, 과학기술 분야 협력

- (국방) 불가리아 고등 훈련기 교체 수요에 따른 국방 분야 협력 가능성
 - 불가리아는 고등훈련기 L-39를 체코로부터 1987년, 1991년 도입하여 12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훈련기 노후화에 따라 향후 5년 이후 교체 계획 중
 - 2019년 8월, 불가리아가 미국으로부터 F-16V 8대 구입함에 따라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 수요가 발생, T-50 등 국산 훈련기 수출 가능성 존재
- (과학기술) 국내 유휴 장비 이전을 통한 양국 기술 교류 협력 확대
 - 소피아 기술대학 내 국내 유휴 장비 이전 및 관련 장비 교육을 통해 양국 간 기술 협력 강화를 시도 했으나, 부과세 등 현지 조세법 문제로 사업 취소
 - KOTRA-한국기관-불가리아 대학이 협력하여 유휴 장비 무상 이전 시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양 국 기술 협력 확대 노력 예정

Ⅲ. 진출전략



Ⅲ

진출전략

- ▶ (SO) 동유럽 한류를 활용,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80~90년생 소비 공략
- ▶ (ST) 투자진출에 유리한 불가리아를 서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 ▶ (WO) 2021~2027년 배정된 EU 기금을 활용한 EU 프로젝트 수주 확대
- ▶ (WT) 유럽 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코로나 특수 제품 수출 집중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포스트코로나 이후 4%대 높은 경제 성장 ❖ 낮은 인건비, 법인세 등 투자 진출 유리 ❖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 한국(공산품)-불가리아(1차산품) 간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	❖ 관료주의, 정부의 부패지수가 높은 편 ❖ 인구 700만 명, 주변국 대비 작은 시장 규모 ❖ 높은 소득불평등도로 인해 중산층 규모가 작으며 시장이 고가와 저가로 양분 ❖ 20%대의 낮은 백신 접종률
기 회 (Opportunity)	위 험 (Threat)
❖ 2021~27년 기간 286억 규모의 EU기금 배정 ❖ 2019년 총리 방한으로 양국 경제 협력 강화 ❖ 한류 콘텐츠 인기로 불가리아 제2한류 확대	❖ 유럽 고령화에 따른 소비/생산 인구 감소 ❖ 환경규제 등 EU의 비관세 장벽 강화 ❖ 16+1전략 통한 중국의 불가리아 영향력 확대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경기 회복 모멘텀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증가를 바탕으로 한 소비재 위주 진출	80~90년생의 소비를 집중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 불가리아를 우리기업의 서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	불가리아를 유럽진출 교두보로 활용
WO 전략 (기회 포착)	● 2021~2027년 불가리아 내 배정 EU기금을 활용한 현지 프로젝트 시장 진출	EU 프로젝트 수주 기회 포착
WT 전략 (위험 대응)	● 코로나에 따라 수입 수요가 급증한 의료제품의 불가리아 시장 진출 지원	코로나 특수 제품 수출 확대

2. 주요 이슈별 진출전략

2022년 진출 전략	
분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코로나로 건강에 민감해진 소비자	- 도시화에 따른 도시거주인구 증가로 건강보조제품 시장 확대 - K-방역의 인기를 바탕으로 코로나 방역제품 수출 지원 집중 - 질병 예방에 대한 소비자 관심 → 면역력 증진 제품 수출 - 유망 품목은 '건강보조식품', '건강음료', '방역용품'
소비 트렌드로 거듭나는 한류	- 동유럽 한류 확산에 따른 한류 수혜 소비재의 마케팅 강화 - 불가리아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으로 합리적인 가격 설정 필요 -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온라인 마케팅/유통망을 적극 활용 - 유망 품목은 '화장품', '간편 식품'
EU기금 활용한 노후 의료설비 교체	2021~2027년 EU기금을 지원 받는 의료 선진화 프로젝트 발굴 - 노후 장비 교체 수요가 있는 국립병원을 마케팅 타깃으로 설정 - 저가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혁신제품 수출 지원 - 유망 품목은 '의료기기', '의료소프트웨어', '의료용가구'
중고차 시장에 부는 새로운 바람, K-Car	- 유럽산 대비 한국 중고차의 뛰어난 가성비를 마케팅에 활용 - 현지 딜러와 긴밀한 파트너십 통한 차별화된 차량 구매 서비스 제공 - 한국산 LPG차 수출 등 현지 자동차 시장의 니치마켓 공략 - 유망 품목은 '중고 자동차', 'A/S 부품'
K-Food K-Medical K-Beauty K-Car	(K-Food) 가처분소득 회복, 성장하는 불가리아 건강 시장 진출 (K-Medical) EU기금 활용 노후 의료설비 교체 프로젝트 공략 (K-Beauty)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양방향 마케팅 추진 (K-Car) 한국 LPG 차량 수출 통한 현지 중고차 니치마켓 공략

2-1. (K-Food) 가처분소득 회복, 성장하는 불가리아 건강 시장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21년 이후 불가리아 경제는 반등하며 4% 경제성장을 회복, 소비자 구매력 증가
- 도시화에 따른 도시 거주 인구 증가로 비타민, 영양제 등 건강보조식품 수요 증가
- 코로나 확산으로 비타민 등 면역력 증진 제품을 통한 감염 예방에 대한 관심 증가
- 불가리아 인구 고령화로 건강 시장 규모 지속 증가 기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불가리아는 고령화, 도시화 심화에 따라 '건강'이 소비 트렌드로 부상 중
 - 2020년 불가리아의 64세 이상 인구는 150.4만 명으로 총 인구 21.7%를 차지, 또한, 인구의 73%인 504만 명이 도시에 거주하며 높은 도시화율을 보임

2020년 불가리아 연령별·지역별 인구 분포

(단위 : 만 명, %)

구분	총 인구	도시	농촌	연령별 주요 수요 제품
미성년(~19세)	131.3 (19.0)	98.2	33.1	여가/취미, 의류, 전자기기
청년(20~39세)	162.4 (23.5)	123.9	38.5	전자기기, 의류, 주류, 화장품, 여행, 스포츠
중년(40~64세)	247.5 (35.8)	181.6	65.9	건강, 주택, 교육, 고가 화장품
노년(64세~)	150.4 (21.7)	100.5	49.9	건강, 식/음료(전통), 주택, 문화
총 인구	691.7 (100.0)	504.3	187.4	

* 자료 : 불가리아 통계청 (소피아무역관 재가공)

- 2016~2020년 기간 불가리아 소비자의 건강 소비는 10%대의 높은 증가를 보임
 - 2020년 불가리아 소비자의 1인당 소비지출은 2,584유로로 2016~2020년 기간 연평균 6.5% 증가, 동 기간 건강 지출은 10.2%로 총 소비 증가율을 3.7%p 상회
 - * 2016~20 불가리아인 건강 지출(유로) : ('16)134 → ('17)143 → ('18)160 → ('19)197 → ('20)198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 (유망품목) 알로에 등 천연성분의 과일 음료, 프리미엄 건강 음료
 - 2020년 불가리아 건강음료 시장은 2.8억 유로 규모로 소비자 구매력과 고령 인구 증가 추세로 2015~2020년 기간 연평균 9%의 준수한 성장률을 보임
 - * 불가리아인은 옛날부터 과일음료의 일종인 콤포트(Kompot)를 즐겨 마시는 등 일상에서 인공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천연 과일음료를 친숙하게 소비

- (진출전략) Lidl, Billa 등 식료품 대형 유통망 납품 바이어 우선 발굴
 - 불가리아는 시장, 소형 잡화점이 주요 유통망이었으나 도시화 가속 추세에 따라 대형 할인 매장 및 제품별 전문 매장의 유통 비중이 증가 추세
 - 식료품의 경우 Lidl, Billa 등 독일 대형 유통망의 시장점유율이 50% 가량을 차지

2-2. (K-Medical) EU기금 활용, 노후 의료설비 교체 프로젝트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의 방역 성공 사례가 널리 알려지며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인지도 상승
- 2021~2027년 기간 290억 유로의 EU기금을 활용한 의료 선진화 프로젝트 다수 발주
- 높은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 코로나에 따른 병원 이용 증가로 노후 기기 교체 필요성 증가
- 불가리아 초고령사회 진입,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불가리아 의료기기 시장은 2020년까지 327.3백만 달러로 규모로 추정
 - Fitch Solutions은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증가, 보건 투자 확대 등으로 불가리아 의료기기 시장이 2024년까지 414백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21~2027년 EU기금을 활용한 의료 선진화로 신규 의료기기 수입 수요 존재
 - 103억 유로 규모 경제회복기금(RRF) 내 보건환경 개선 예산 16.9억이 배정
 - 특히, 불가리아의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는 80%대로 높은 편으로, EU기금을 활용한 보건환경 개선 프로젝트 관련 의료기기 수입수요 증가가 기대

2015~2020 불가리아 의료기기 시장 규모 및 수입의존도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E	2020F
전체 시장 규모	252.0	237.6	278.7	288.7	327.9	327.3
의료기기 수입액	210.5	198.3	234.6	241.0	273.9	292.6
수입의존도	83.5	83.5	84.2	83.5	83.5	89.4

* 주 : 1. 2019년은 Fitch Solutions의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임

2. 수입의존도 = 의료기기 수입액 ÷ 전체 시장 규모

* 자료 : Bulgaria Medical Devices Report(Fitch Solutions/2020.12월), GTA 자료 종합 (무역관 재가공)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 (유망품목) 의료기기, 의료 소프트웨어, 의료용 가구
 - 정부의 의료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저가 중국산을 선호하던 과거와 달리 품질, 기술력, 혁신성 등 제품 구입 시 비가격 요인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 (진출전략) 공공조달 납품 경험이 풍부한 현지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구축
 - 불가리아 보건부에서 인증한 업체만이 국공립병원 기기 등 납품이 가능하며 대부분 공공 입찰로 납품이 진행되므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
 - 현지 기업과 협업하여 국내기업의 의료용품 공급하는 방식의 진출방안 고려필요

2-3. (K-Beauty)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양방향 마케팅 추진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넷플릭스 등 OTT를 통한 한류 콘텐츠 부상으로 불가리아의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온라인 유통망 및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마케팅 등을 적극 활용
- EU 평균 대비 낮은 구매력으로 서유럽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가성비 제품이 인기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3% 중반의 안정적 경제 성장으로 미용 등 소비자의 비필수 소비 지출 증가
 - 2016~2020년 기간(2020년 제외) 3% 중반 경제 성장을 유지하며, 불가리아인의 1인당 소비 지출은 2016년 2,007유로에서 2020년 2,584유로로 29% 급성장
 - 구매력 증가로 동기간 미용 등 비필수 소비지출 역시 2016년 27.3%에서 2019년 28.9%로 1.6%p 증가(2020년은 코로나로 비필수 소비지출이 28.4%로 감소)

2016~2020 불가리아 소비자의 1인당 소비지출, 비필수 소비지출 추이

(단위 :유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당 소비 지출	2,007	2,188	2,399	2,590	2,584
비필수 소비지출 비율	27.3	27.5	28.3	28.9	28.4

* 자료 : 불가리아 통계청 (무역관 재가공)

- IT환경에 익숙한 90년대생이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며 전자상거래 급성장
 - 2020년 불가리아 유통채널에서 온라인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나 2016~2020년 기간 연평균 25.4%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 2016~2020 불가리아 온라인 유통 규모(백만 유로) : ('16)254.3 → ('18)329.5 → ('20)628.2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 (유망품목) 천연 화장품, 스킨케어 화장품, 미용기기
 - 넷플릭스 등 OTT를 통한 한류 콘텐츠 부상으로 K-Beauty에 대한 관심 증가
 - 소비자의 마스크팩 등 한국산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에 따라 불가리아의 한국 화장품 수입은 5년(2015~2020) 연평균 105%씩 증가
- (진출전략)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양방향 마케팅 추진
 - 온라인 유통 비율 증가 추세이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불가리아인은 여전히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오프라인 거래를 선호
 - 따라서, 판촉전이나 체험관 등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마케팅과 SNS 등 오프라인 마케팅을 믹스하는 것이 효과적

2-4. (K-Car) 한국 LPG 차량 수출 통한 현지 중고차 니치마켓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전체 시장에서 중고차 비율이 85%로 중고차 위주의 자동차 시장 형성
- 타EU 회원국 대비 소득이 낮으며,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
- 한국 자동차가 현지 택시, 경찰차 등으로 도입되는 등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인기 상승

주요 이슈 및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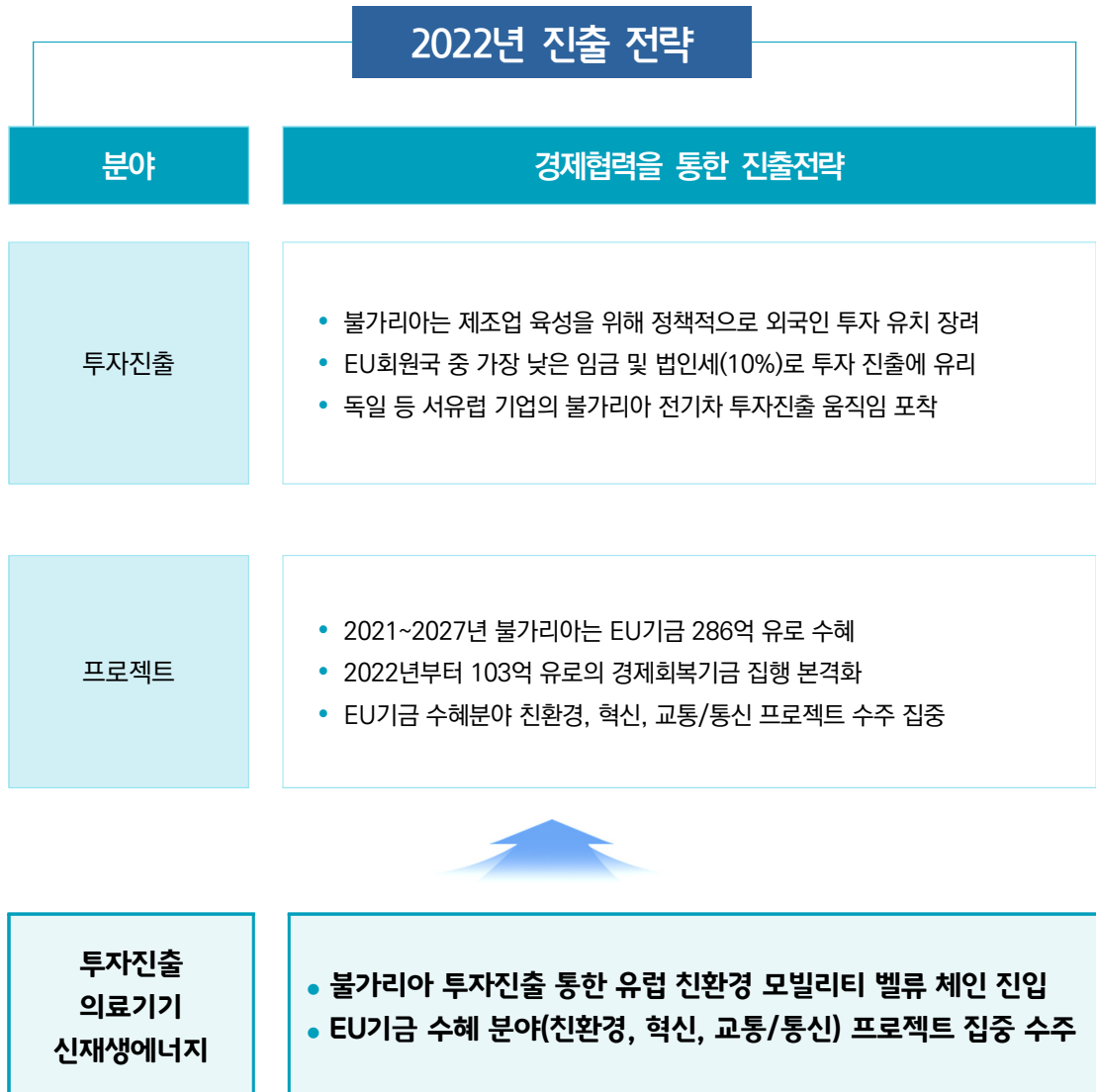
- 불가리아 내 자동차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차량 선호 증가
 - EU 저탄소 경제 기조로 불가리아는 2019. 1월부터 환경오염의 정도를 자동차세에 반영했으며, 이로 인해 노후 차량은 최대 30%까지 세금 부담이 증가
 - 그 결과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배출 차량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LPG차의 경우 낮은 연료비와 주유의 편리성으로 선호도가 높은 편임
 - * 불가리아는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일반 주유소가 LPG 충전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주유에 불편함이 적은 편이며, LPG 가격이 기존 휘발유, 경유 대비 50% 가량 저렴함
- 타EU 회원국 대비 낮은 소득 수준으로 중고차 위주 자동차 시장이 형성
 - 도로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신규 등록 자동차 32만대 중 84%인 26.3만대가 중고차로, 등록된 중고 자동차의 80%가 10년 초과된 노후 차량임
 - 연식이 오래되어 가격이 저렴한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중고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서유럽(독일, 프랑스 등)으로 부터 중고차가 대거 유입

- 최근 가성비 높은 브랜드로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가 증가
 - KIA의 CEED가 택시(Yellow Taxi), 경찰차로 도입되는 등 불가리아 시장 내에서 한국 자동차가 가성비 높은 브랜드로 인지도를 얻어가는 추세임

■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 (유망품목) LPG 중고차, 범용 자동차A/S부품
 - 유럽 환경 규제 강화로 불가리아에서도 저탄소 배출 차량 수요 증가 추세로, 연료비 등 유지비가 저렴하며, 안전한 한국산 LPG 중고차가 인기
- (진출전략) 유럽 물류 네트워크 확보 통한 A/S 부품 조달 수요에 적기 대응
 -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등을 활용, 보관창고 등 현지 물류 네트워크 확보, 구매 차량 고장수리 등에 따른 현지 부품 조달에 신속적으로 대응
 - * 한국산 중고차를 수입 중인 바이어는 소비자가 한국 중고차 구매를 꺼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지 부품 조달 어려움에 따른 A/S 불편'을 지적

3. 한-불가리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3-1. 불가리아 투자진출 통한 유럽 친환경 모빌리티 벨류 체인 진입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불가리아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장려
-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임금 및 법인세(10%)로 투자 진출에 유리
- 독일 등 서유럽 기업의 불가리아 전기차 투자 진출 움직임 포착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불가리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을 희망하고 있음. 특히, 산업의 전후방 효과 및 고용 창출이 큰 자동차 산업 투자 유치를 희망
 - 2019년 9월, 보리스프 전 불가리아 총리가 방한, 양국 투자 협력 확대를 논의
 - 방한 기간, 경제부 총리를 포함한 불가리아 정부 대표단은 국내 완성차 및 주요 부품사를 내방하여 한국 자동차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의사를 적극 표명
- 정부의 적극적인 제조업 해외 투자 유치 노력에 따라 2021년 독일 전기차 기업이 불가리아에 140백만 유로 규모의 생산 공장 설립을 결정
 - 2021년 7월, 독일 전기차 제조기업 Next e.Go Mobile사는 북부 로베치(Lovech) 지역 내 연 3만대 규모의 전기차 제조 공장을 설립할 예정임
 - 해당 공장은 2024년 완공 예정으로, Next e.Go Mobile사의 주력 모델인 e.Go Life, e.Go Life Cross 등을 생산할 예정
- 다만, 불가리아의 낮은 전기차 및 충전소 보급률은 해외 기업의 관련 투자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1년 상반기 불가리아 전기차 신규 등록 수는 1,170대로 EU 26위를 기록, 전기차 충전소 역시 194개(2020년 기준)로 EU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함

2021년 상반기 EU 주요국별 전기차 신규 등록 현황

(단위 :대)

순위	국명	BEV	PHEV	HEV	합계
1	독일	148,936	163,571	220,827	533,334
2	이탈리아	30,249	38,133	242,735	311,117
3	프랑스	72,519	71,785	153,123	297,427
4	스페인	9,258	19,127	107,825	136,210
5	스웨덴	22,618	46,532	13,151	82,301
26	불가리아	286	135	749	1,170

* 자료 :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무역관 재가공)

■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불가리아 투자 진출 통한 유럽 친환경 모빌리티 벨류 체인 진입
 - 그린딜로 대표되는 유럽의 탄소 중립 정책 강화 기조로 서유럽 글로벌 기업의 전기차, 전기 자전거, 전기스쿠터 분야 불가리아 투자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
 - 이에 따라, 향후 불가리아가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 소형 친환경 모빌리티 생산 허브로 거듭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음
 - 따라서, 불가리아의 낮은 법인세, 인건비를 활용한 투자 진출을 통해 불가리아 등 유럽 친환경 모빌리티 벨류 체인 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020~2021년 불가리아 친환경 모빌리티(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투자 사례

(단위 :백만 유로)

기업명	국가	투자분야	투자연도	투자금액	투자지역
Next e.Go Mobile	독일	전기차	2021	140	로베치
Pierer Group	오스트리아	전기자전거	2021	31	플로브디브
Leader 96	불가리아	전기자전거	2020	2	플로브디브

* 자료 : 무역관 자체 조사 (무역관 재가공)

3-2. EU기금 수혜 분야(친환경, 혁신, 교통/통신) 프로젝트 집중 수주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EU 기금은 불가리아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작용
- 2021~2027 기간 EU는 불가리아 내 2860억 유로의 기금이 배정
- 2022년부터 103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RRF)이 본격적으로 집행 예정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불가리아는 2022년부터 경제회복기금(RRF) 103억 유로를 본격 집행할 예정
 - RRF는 2021~2027년 기간 불가리아에 배정된 총 EU기금의 36%를 차지하며, 불가리아 정부는 동 기금의 집행 계획을 2021년 10월 EU에 제출 완료함
 - 불가리아 정부 구성이 지연되며 MMF 기금에 대한 집행 계획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기금 집행 역시 지연될 전망
- * 2021~2027 불가리아DP 배정된 EU기금은 총 286억 유로로, 167억 유로의 MMF와 119억 유로의 NGEU로 구성됨. NGEU는 EU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이 중 103억 유로의 RRF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RRF 기금 수혜 유망 분야는 ‘친환경’, ‘혁신’, ‘교통/통신’
 - 불가리아 RRF 집행 계획에 따르면 총 예산의 34.8%가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며, 뒤를 이어 혁신(25.8%), 교통/통신(22.5%) 등의 순임

불가리아 경제회복기금(RRF) 4대 분야 및 예산 배정

분야	예산 배분	세부 주제
Green Bulgaria(친환경)	34.8%	저탄소경제,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농업 등
Innovative Bulgaria(혁신)	25.8%	교육, 기술훈련, R&D, 스마트산업 등
Connected Bulgaria(교통/통신)	22.5%	디지털전환, 교통망개선, 지역개발 등
Fair Bulgaria(복지)	16.9%	보건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 자료: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 of Bulgaria(2021.2월) (무역관 재가공)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2022년 RRF 수혜 분야(친환경, 혁신, 교통/통신) 프로젝트 수주 집중
 - (Green Bulgaria) 저탄소경제(태양광, 탄소감축), 지속가능한 농업(스마트팜) 진출 유망
 - (Innovative Bulgaria) 스마트산업(스마트팩토리) 관련 진출 유망
 - (Connected Bulgaria) 교통망개선(철도교통 개선) 관련 진출 유망
 - (Fair Bulgaria) 보건환경 개선(노후의료기기 교체) 관련 진출 유망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20/US\$백만)	60.8	대한수입액('20/US\$백만)	3.5
	선정사유	2020년 불가리아의 대한민국 화장품 수입은 3.5백만 달러로 2015~2020년 기간 연평균 105%씩 성장		
	시장동향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천연화장품, 마스크팩, 클렌징, 안티에이징 제품 수요가 높음		
	경쟁동향	한국은 불가리아의 화장품 수입 5위로 프랑스, 독일, 체코, 크로아티아 등이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불가리아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CPNP 등록이 선행되어야하며,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활용		
품목명 2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0
범용 자동차 A/S부품	수입액('20/US\$백만)	261.7	대한수입액('20/US\$백만)	0.7
	선정사유	낮은 소득 수준으로 중고차 위주 시장 형성, 높은 중고차 비율로 부품 교체 수요 상시 존재		
	시장동향	현대, 기아 등 국산 자동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경쟁동향	한국은 불가리아의 자동차부품 수입 26위로 독일, 폴란드, 터키, 이탈리아 등이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KOTRA 물류 지원사업 등을 통한 유럽 내 물류망 구축하여 바이어 구매 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		
품목명 3	HS Code	1902.30	수입관세율(%)	0
라면 등 간편 식품	수입액('20/US\$백만)	3.8	대한수입액('20/US\$백만)	0.5
	선정사유	불가리아인의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로 라면 등 한국산 간편식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시장동향	불가리아 면류 시장 규모는 115.0백만 유로로 2016~2020년 기간 연평균 5.4%씩 증가		
	경쟁동향	한국은 불가리아의 면류 수입 2위로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러시아, 이탈리아가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면 제품의 60%가 대형슈퍼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대형 슈퍼마켓 체인 납품 중인 바이어 발굴이 중요		
품목명 4	HS Code	9018.90	수입관세율(%)	0
의료기기	수입액('20/US\$백만)	73.8	대한수입액('20/US\$백만)	0.6
	선정사유	2022년 RRF 기금을 활용한 노후기기 교체 프로젝트를 다수 발주될 것으로 기대		
	시장동향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으며, 불가리아는 의료기기의 80%를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한국은 불가리아의 의료기기 수입 21위로 독일, 체코, 일본, 루마니아, 중국이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불가리아 파트너 기업 발굴을 통해 EU기금을 활용한 의료 분야 공공 조달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		

품목명 5	HS Code	8703.32	수입관세율(%)	0
중고자동차	수입액('20/US\$백만)	150.9	대한수입액('20/US\$백만)	0.3
	선정사유	낮은 소득 수준으로 중고차 위주 시장을 형성, 가성비 좋은 한국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시장동향	현대, 기아 등 국산 자동차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경쟁동향	한국은 불가리아의 자동차 수입 19위로 헝가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불가리아 내 친환경 차량 수요 증가 추세로, 가성비와 안전성을 겸비한 한국 LPG 차량 수출		
품목명 6	HS Code	8421.39	수입관세율(%)	0
공기청정기	수입액('20/US\$백만)	21.0	대한수입액('20/US\$백만)	0.03
	선정사유	높은 중고차 사용 비율,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추세		
	시장동향	소득 수준이 높고,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소피아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		
	경쟁동향	한국은 불가리아의 공기청정기 수입 26위로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헝가리가 주요 수입국임		
	진출방안	불가리아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으로 서유럽 제품 대비 가성비를 갖춘 제품의 시장진출이 유망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스마트팜	선정사유	불가리아는 한국과 기후 및 농업 여건이 유사하여 한국 스마트팜 기술 수출에 유리
	시장동향	EU기금 등을 통한 스마트팜 관련 프로젝트 증가
	경쟁동향	불가리아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농장 모니터링 시스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등 시장 형성 중
	진출방안	한국의 기술력과 불가리아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 EU의 공동 R&D 프로그램 협력 수행
품목명 2		
전기차 충전 시스템	선정사유	유럽 친환경 정책 강화로 불가리아 내 전기차 등 저탄소배출 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불가리아 내 전기차 충전소는 200여개 내외로 EU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함
	경쟁동향	불가리아는 중국, 서유럽 등에서 들여온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주로 활용 중임
	진출방안	Eldrive, EVPoint 등 불가리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키 플레이어와 기술 협력 및 공동 제품 개발
품목명 3		
드론 시스템	선정사유	한국은 5G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 시스템에 대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시장동향	불가리아 인구 감소로 드론 등을 활용한 해상, 국경 감시시스템에 대한 수요 존재
	경쟁동향	불가리아에서 자체 제작된 드론 제품/시스템은 없으며 서유럽, 미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진출방안	불가리아 국방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무인정찰기 구입 수요가 존재, 관련 프로젝트 진출 검토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불가리아 주요 쇼핑몰/마트 연계 수출 유망 한국 소비재 판촉전

- 불가리아 대형 쇼핑몰 연계 Korea-Beauty Week 개최(2022. 2분기, 소피아)
 - 불가리아 바이어와 협업, 주요 쇼핑몰 내에서 한국 화장품 판촉전 개최
 - K-Beauty Week 판촉전 관련, 동유럽 무역관 협업 화상 상담회 연계 개최
- 불가리아 대형 슈퍼마켓 연계 K-Food Week 개최(2022. 4분기, 소피아)
 - 불가리아 바이어와 협업, 주요 슈퍼마켓 내에서 한국 식품 판촉전 개최
 - K-Food Week 판촉전 관련, 동유럽 무역관 협업 화상 상담회 연계 개최

■ 2022년 집행 본격화 예정인 EU 경제회복기금 수혜 프로젝트 수주 지원

- 동유럽 무역관 협업 한-동유럽 그린딜 플라자 개최(2022. 3분기, 소피아)
 - 경제회복기금이 30% 이상 투입되는 동유럽 그린딜 프로젝트(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분야 웨비나 및 상담회 개최
 - 동유럽 무역관 협업을 통한 사업 대형화로 대형 발주처, 디벨로퍼, 벤더사 초청

■ 불가리아 유망 품목 특화 무역(온라인)사절단 운영

- 불가리아 유망 품목(화장품, 의료기기, 자동차A/S부품) 특화 무역사절단 구성
 - 화장품,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 지역 특화 산업을 반영한 무역사절단 운영
 - 국내기업 5~10개사 규모의 소규모 사절단 구성을 통해 상담 매칭 확률 제고
 - 코로나에 따라 우리기업의 입국이 어려울 경우 화상상담회로 전환 시행

■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

- (맞춤형 화상상담) 내수 및 초보기업 대상 맞춤형 화상상담 지원(연중 상시)
 - 한-불가리아상공회의소 등 현지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바이어 수요 발굴
 - 화상 상담, 사후 교신 지원 통한 국내기업의 성약 가능성 제고
- (지사화) 무역관 전담 직원을 통한 현지 진출 희망기업 연간 지원(연중 상시)
 - 소피아 무역관 지사화 전담직원이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직원 역할을 수행
 - 연간 14개사 운영 중이며 정보조사, 제품 홍보, 거래선 발굴 등 지원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불가리아 총선	2021. 11월	3차
불가리아 대선	2021. 11월	
불가리아 CVM* 모니터링 종료	2022~2023	

* CVM(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 : EU집행위가 시행 중인 부정부패 모니터링 시스템.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한 2007년 이후 지속 시행 중이며, 불가리아는 매년 CVM 이행 결과를 EU 집행위에 제출해야 함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불가리아 RRF 집행 계획 제출	2021. 10월	
불가리아 유로존 가입	2023~2025	

유망 전시회 캘린더

분야	전시회명	일시/장소
의료	2022 불가리아 의료기기 전시회(BULMEDICA/BULDENTAL)	5.11~13 / 소피아
식품	2022 불가리아 식품 전시회(Inter Food & Drink Bulgaria)	9월(미정) / 소피아
미용	2022 불가리아 미용 전시회(Arena of Beauty)	9월(미정) / 소피아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한국무역보험공사] 불가리아 국별 인수방침

신용장	무신용장
정상인수	정상인수

* 현 국별 인수방침은 '21.12.29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부 국별조사팀(02-399-7177) 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www.ksure.or.kr:8443/research/content/contentViewD.do?brdUpperCode=A>)

주요 용어 설명

용어	내용
정상인수	별도의 인수제한조치 없이 인수하는 것을 의미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정지운	과장	소피아무역관	+359-2-969-5037	jiunj@kotra.or.kr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III. 진출전략

KOTRA자료 21-256

2022

불가리아 진출전략

발 행 처 KOTRA

발 행 인 유정열

편 집 인 경제통상협력본부

발 행 일 2021년 12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06792)

전 화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 S B N 979-11-402-0111-2 (95320)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2022 불가리아 진출전략

